

# “유가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의 상당부분은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월간 주유소 1월호에 유가 자유화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중 유가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93%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은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고시가격 체계하에서는 유가 산정의 근거 및 변동요인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었으나, 유가 자유화 이후에는 석유업계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석유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월간 주유소 1월호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전제한다. <편집자주>

## 설문조사

### 조사대상분석

이번 조사는 서울 시내의 남녀 오너드라이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48명(80%)을 차지하고 여자는 20%(12명)를 차지했다. 운전경력은 1년 미만이 13명(22%), 1년에서 2년 사이 10명(17%), 2년에서 3년 사이 53%(32명), 4년에서 5년 사이 3명(5%), 5년 이상이 2명(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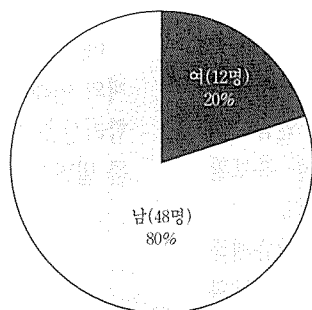
### 문항분석

유류가격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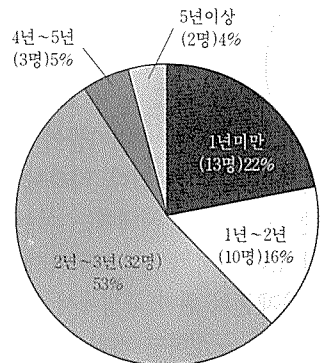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13%,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관심을 갖는다」가 48%, 「전혀 관심이 없다」가 38%를 차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매달 유류가격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그렇다」가 33명(55%)으로 「그렇지 않다」(48%)보다 다소 높아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가결정 구조를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93%의 압도적인 숫자가 「모른다」고 대답해서 업계의 구조와

#### ● 성별



#### ● 운전경력



실상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 유가자유화에 대한 문항분석

유가자유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리는 질문에 「유류가격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라는 응답이 68%를 차지, 비교적 제대로 유가자유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류가격이 정유사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라는 응답도 24% (14명)에 달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물었을 때 「안다」라는 대답은 31%로 「모른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로 보아 유가자유화에 대한 홍보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자유화 실시 이후 유류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상승」이 42%, 「현재보다 하락」은 35%, 「별 차이가 없을 것」(23%)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 상승한다는 대답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소비자들은 유가자유화 이후에는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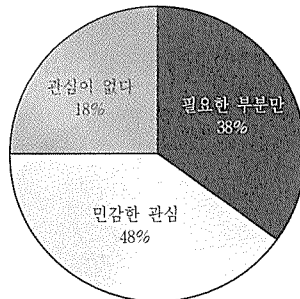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유가 차이 때문에 주유소를 옮기겠다는 가리는 질문에는 75%가 옮기겠다고 응답했다. 얼마 정도의 가격 차이에 옮기겠다는가를 묻자 1만원 주유시 기준으로 천원 이하가 41%, 천원 이상이 22%였다. 따라서 가격경쟁은 1만

원 주유시 천원 미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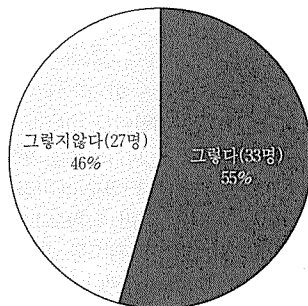
또한 유가자유화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가 25명, 「너무 늦다」가 21명, 「적당하다」가 14명으로 그 시기는 각자의 의견이 달랐다.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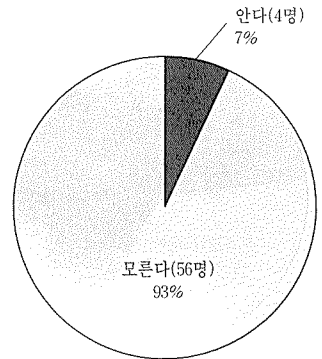
1. 귀하는 유류가격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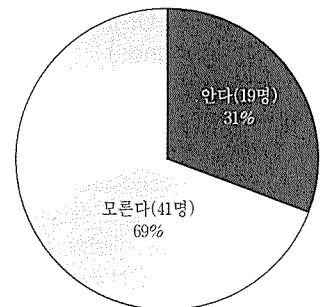
2. 현재 유류가격이 매일 변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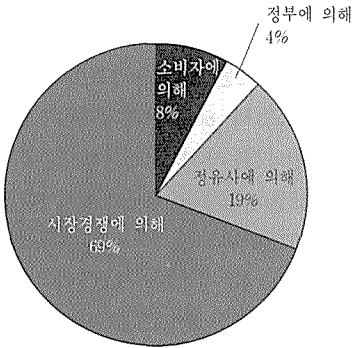
3. 현행 유가결정 구조는 공장도 가격에 마진,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등의 세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무연휘발유의 시중 소매가격이 1당 730원이라면 공장도 가격이 210.52원에, 345원의 특소세와 51.75원의 교육세, 60.73원의 부가세가 붙여져 668원의 정유사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21.82원의 마진과 2.18원의 부가세를 덧붙인 692원이 대리점 가격되고, 유류 소매점(주유소, 부관점)에서는 34.55원의 마진에 3.45원의 부가세를 더해 결국 730원의 소매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가격의 결정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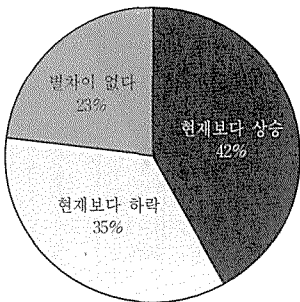
4. '97년 1월 1일부터 국내 석유시장에서 유가자유화를 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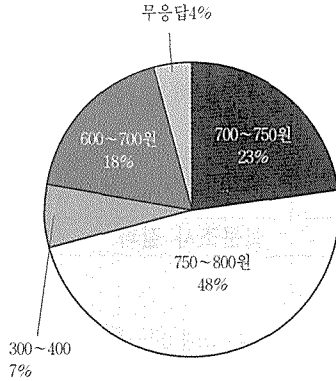
5. 「유가자유화」란 무엇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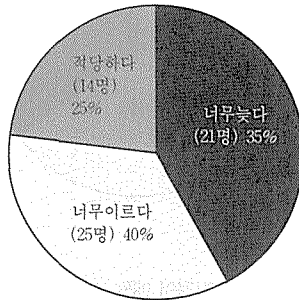
6. 유가자유화가 시행되면 유류가격은 현재와 비교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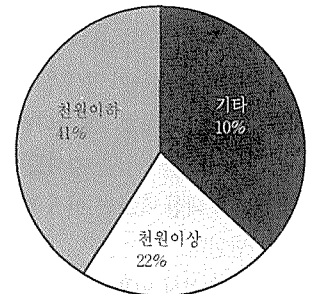
7. 귀하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됐을 때 휘발유 가격이 1당 얼마로 책정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국내 석유시장에서 유가자유화를 시행하게 된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현재 귀하가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주유소보다 타 주유소에서 유류가격이 더 낮을 경우 옮길까 의사는 있습니까? 유가차이로 주유소를 옮길 경우 얼마정도의 가격차이에서 옮기겠습니까?



**| 용 | 어 | 해 | 설 |**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VOC는 광학스모그 원인물질, 발암성 등의 유해물질, 지구온난화와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원인 물질. 대기중 악취물질 등 대기환경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칭. 따라서 선진국가에서는 미국의 대기정화법(1963)을 비롯하여 VOC

배출량저감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는 '97년부터 단계적 규제를 목표로 관련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VOC에 속하는 화합물은 방향족 탄화수소와 지방족 탄화수소(파리핀계와 올레핀계)등의 일반 탄화수소와 질소, 산소 및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는 비균질탄화수소가 해당된다.

VOC는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이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건강에 직접 유

해하거나 지방족 탄화수소와 같이 대기중의 반응에 참여하여 광화학산화운동의 2차적 유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VOC의 주요배출원은 환경부 추정자료에 의하면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고(48.1%), 건축물 등의 도장·세탁·인쇄에서 11.5%, 주유소 및 저장시설에서 7.6%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